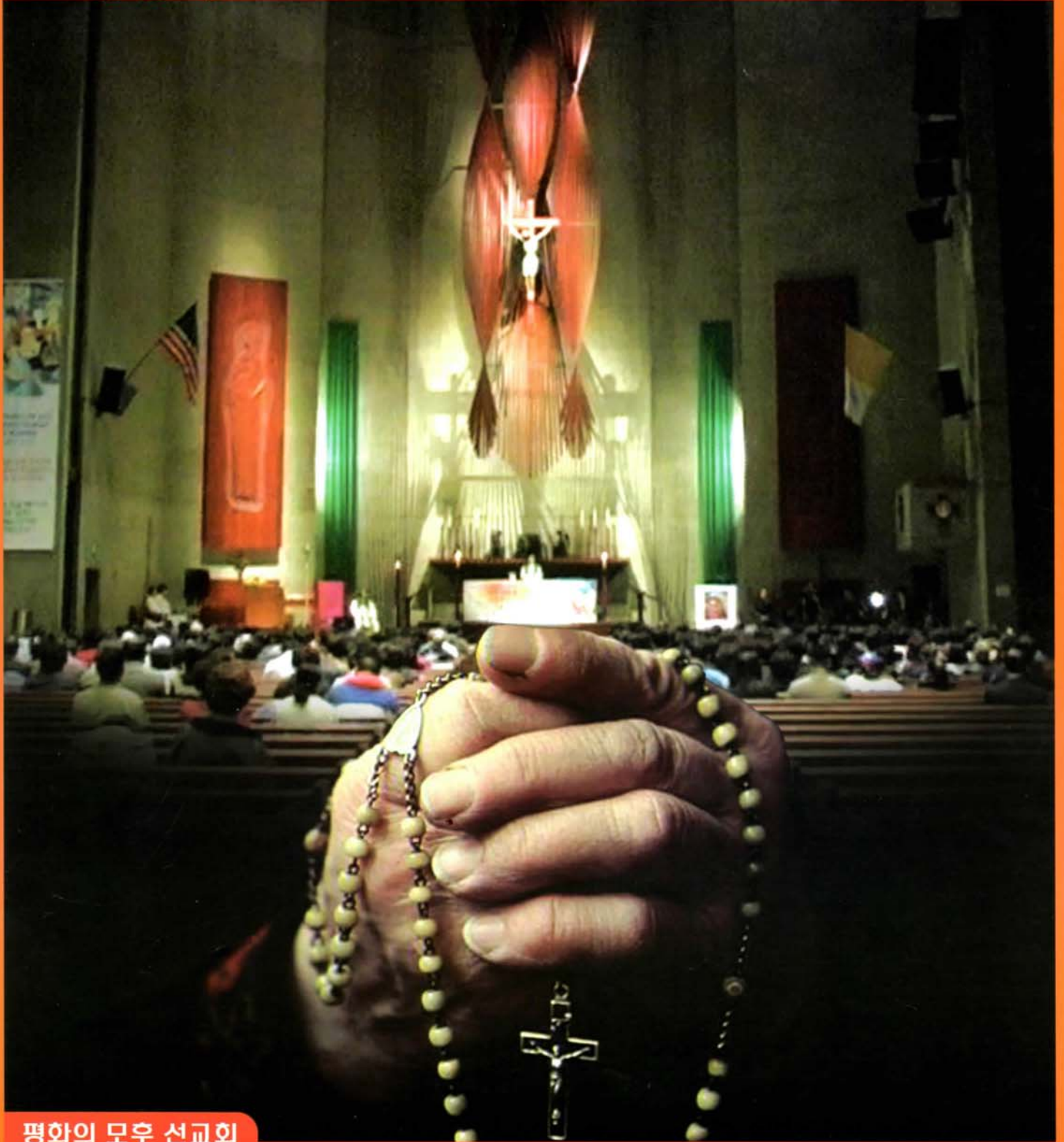


# 메주고리에



Medjugorje

FEBRUARY, 2005 제 25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너희를 다시 기도 하라고 부른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이들이 한마음으로  
 일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일치는 진정코 너희들의 기도와  
 용서함에 달려 있다.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비로서 사랑이 이루어지며 너희의 마음  
 이 열리게 됨을 잊지 말아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2005년 1월 25일

###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2005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제38차 세계 평화의 날 대미사가 바티칸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는데 교황은 다음과 같은 강론을 하였다. "축하합니다, 거룩하신 마리아, 당신은 영원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왕을 낳아주셨습니다." 새해의 첫날, 교회는 '평화의 왕자'(이사 9,5)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천주의 어머니 성화 앞에서 기쁨으로 그 분을 공경하며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이태리어 기사에서)

### 성체조배나 성체 앞 기도 통해 성체성사의 해 특별 전대사 허락

교황청 내사원(원장 프란시스 스탠포드 추기경)은 14일 성체성사의 해 전대사와 관련한 교령을 공식 발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신자들이 성체성사를 더욱 잘 알고 성체께 대한 사랑을 더욱 키우도록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내사원의 교령에 의하면 성체성사의 해에 특별 전대사를 얻으려면 먼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한 후 교황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바치는 등 이런 요건을 채운 후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이나 성체를 현시하고 이뤄지는 성체조배를 비롯한 성체공경 예식이나 기도를 바칠 경우, 또 감실에 성체를 모신 성당이나 경당에서 성무일도 저녁기도에 참여할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바티칸시티=외신종합]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체의 해를 선포한 교황님과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 교회와 고통중에 있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하여...
- 모든 사제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어머니 마을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 성모님, 정세실리아 어머니의 영혼을 보살펴주세요.
- David와 부모님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아들의 신앙과 믿음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해일로 죽어간 250,000명의 영혼을 위하여...
-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언니와 동생의 가정들을 위하여...
- 성모님, 새로 시작하는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봉헌합니다.
- 군에 간 아들의 믿음과 안전을 위하여...
- 오빠가 도박의 유혹에서 헤어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 24주만에 태어난 아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 세계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 아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을 위하여...
- 형제들의 굳건한 신앙과 어머니를 위하여...
- 낙태아들과 부모님들, 낙태 반대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믿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작은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 언제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가정의 성화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화해를 위하여...
-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세요.
- 아들의 직장과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식도암 수술 후 건강한 몸과 마음의 축복된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 가족들을 악의 유혹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 영적, 가정, 낙태아, 공동체에 의한 상처들의 치유를 위하여...
- 성모님, 냉담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주세요.

지면상 이곳에 기재되지 못한 기도 지향들도 메주고리에 순례때에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함께 미사를 봉헌 했으며 발현 목격자 비스카를 통하여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 "하느님, 당신 마음에 드는 올바른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백운택 신부(살레시오회)



가장 바쁘다는 연말에 RYC Center와 공동체를 비우고 메주고리에 순례 길에 오른다는 부담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을 뒤로하고 12월 27일 오후 공항으로 향했다. 날씨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찌뿌득 하고 기온도 쌀쌀한 늦은 오후였다. 다행이도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말동무

가 되어주신 동료신부님 덕분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의 걱정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농담으로 내 마음을 풀어 주시어 웃음으로 '10일간의 메주고리에 순례'라는 장도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셨고 영적으로 함께 동행 해 주셨다.

공항에 도착하자 나보다 먼저 순례 단을 기다리는 자매님이 계셨고 곧이어 다른 순례단원들이 도착하셨다. 모두다 메주고리를 처음으로 가보는 순례자들이라 상상력들이 풍부했다.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각자 이것저것 주어들은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같은 초행자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나는 이미 세상의 것들로부터 초월하고 있었던 것이다.

Croatia의 Split에서부터 메주고리에까지의 2시간 반 정도는 버스로 이동했다. 밤길이었지만 보름달에 비추어 눈앞에 덩실 펼쳐져있는 아드리아 해안 (the Adriatic Coast)은 태초부터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유난히도 맑고 푸른 물 그리고 가공건물들이 부족하기에 섬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순수한 자연'을 그려내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 위를 달리는 우리 순례 단은 환상의 세계에 도취되어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한순간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차창가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는 이지역의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셨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밤길을 재촉하며 우리 순례 단은 한 걸음 한걸음 우리를 기다리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품으로 더욱 가까이 향했다.

메주고리에는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다. 마을전체는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집들, 비좁은 도로, 가끔씩 눈에 들어오는 채소밭 그리고 성 야고버 (St. Jacob) 성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고 뛰놀았던 동네 같은 포근함이 있었고, 항상 꿈속에서 동경하던 평화로움과 자유가 있는 작은 동네 같은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주일 이상 이곳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주고리에는 나의 마을이 되었고 나는 이 마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고 소박한 마을, 메주고리에서 많은 영적체험을 갖을 수 있었다. 성 야고버 (St. Jacob) 성당에서의 미사, 목주기도 그리고 성시간 성모님의 발현산과 십자가산 체나콜로 공동체 (The "Cenacolo" Community) 및 프란치스코회 순교자성당 방문 등등.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영성적 교훈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순례단과 함께 솟구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 그리고 성모님께 달려가고 싶은 끝없는 신앙적 충동이 내가 경험한 영적체험이다. 끝없는 찬양과 끊임없는 기도로 토해내는 순례자들의 신앙의 열정에 나도 함께 묻혀버렸던 것이다. 순례자들과 함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때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온 정열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의 불길을 부어주시는 듯 했다. 그리고 이미 성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넘치는 성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모님의 품안에서 기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평화로운 나의 모습

"성체의 힘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었다.

메주고리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영성적 교훈은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모님의 발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메주고리의 전반적인 관심과 영성의 중심은 당연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모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다. 매일 저녁 5시면 동네사람들과 순례자들은 성 야고버 (St. Jacob) 성당에 모여 미사가 시작되는 6시까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친다. 성시간까지 하면 3시간이 걸리는 이 시간은 사제인 나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들에게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오스팅 성인께서는 고백록에서 "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찾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신학생 시절에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다. 저녁 식사 후에 수도원 안에 있었던 작은 호수를 돌며 "하느님, 당신 마음에 드는 올바른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성모님께 매달렸었다. 성모님께서서는 간절히 매달리던 나의 애절한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내가 입회했던 그 해에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 총 26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나만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러한 나에게 메주고리에 순례 중 성 야고버 (St. Jacob) 성당에 모여 바치는 묵주기도는 의미가 특별했고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순례자들은 성체신심 또한 독실한 사람들이다. 미사가 끝나면 거의 매일 한 시간씩 시작부터 끝까지 무릎을 꿇고 성체 앞에 모여 기도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토록 강하게 그리고 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본다. 물론, 성체의 힘이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을 찾는 모든 영혼

나는 지금 살레시오 수도회 뉴욕관구에서 한인 청소년 사목 전담사제로 사목하고 있고 관구 내 아시안 청소년 사목의 기틀을 다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년 동안은 관구 내 신학생들의 영성지도와 교육을 담당했다. 메주고리에 순례 중 나에게 가장 좋았던 성시간을 보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만약 내가 4년 전 메주고리를 다녀갈 수 있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다. 4년 전 메주고리에 순례를 경험했었다면 신학생들에게 좀더 진지하고 거룩하게 성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메주고리에서 얻은 신앙체험을 생활화해야 할 시간이다. 천주교 영성의 두 핵심인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내가 살아가는 매순간의 삶 속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내영혼의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M**

**해일 피해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주세요.**

은 세계를 경악시킨 해일로 무려 250,0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구령과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주세요.

##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용감하게 증거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임마누엘 수녀



12월 2일, 성모님께서는 미리안 나를 통하여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부른다. 나에게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너희의 이웃들과 화해하여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나를 돕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내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다오!"

크리스마스 날, 대 지진이 일어나기 불과 두 시간 전에 아기 예수님을 평화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모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용감하게 증거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들로 지구가 흔들린 상태이기에 성모님께서 이처럼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약한 저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징벌인가?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재앙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저는 천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23년 동안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은 바로 "단식과 기도로 우리는 전쟁도 막고 자연의 법칙도 정지 시킬 수 있다. (07/12/82)"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재앙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굳건히 결심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자연을 파괴하고자 한다." (01/25/1991) 그리고 "그는 전쟁을 원한다." (09/25/2001) 그리고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자

한다." (03/21/1988) 그리고 "증오가 세상에 지배하였다." (11/25/2001) 그러나 사탄을 무찌르기 위하여 우리가 성모님께서 주신 가장 힘 있는 무기들을 기억한다면 이런 것 모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겸손의 기도와 불타는 사랑으로 너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08/1985) 참으로 우리가 은총의 상태 (어떤 대죄도 짓고 있지 않은 상태) 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은 무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 사탄은 기도하는 네 살짜리를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말씀과 찬양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10개의 비밀의 시작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시작되기 전에 선견자들을 통하여 뿔뿔히 사제가 공식적으로 이 비밀들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 어떤 비밀들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라는 이 엄청난 비극으로 225,000 (1/20/05 현재까지)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비극일까요? 여러 해 동안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율법의 원수들은 영혼들을 죄의 암흑으로 끌어넣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혹독한 학대를 당해왔고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에 의해서 법들이 정해졌고 가정들이 파괴되었으며 하물며 학교에서까지 어린이들에게 혐오스런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비극적인 사건을 돕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 것처럼, 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런 악령들의 행위를 막는데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은 언

"겸손한 기도와 불타는 사랑으로  
너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제인가는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요소의 자선행위를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 자녀들의 영혼들을 영원히 구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오 10:2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파티마의 성모님"을 우리를 돕는 성인으로 뽑은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메주고리에 자녀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해에 도와주실 성인 성녀를 제비를 뽑는 관습이 있음.)성모님께서서는 제1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메주고리에 경우는 우리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전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요! 모든 가정의 중심이 이 물질적인 세계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복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굳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요! 우리 모두 성모님과 협력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합시다.

성모님 보호의 망토를 세상 전역에 널리 펼치며 원수의 계획들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사악한 복

수와 파괴를 막읍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성모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2월 2일 메시지의 부름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써서 성모님께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단식,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 성체조배, 구체적인 화해, 깊은 통회의 고백성사, 가족기도 회복,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올리는 미사 등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 입니다.

성모님의 편지를 성모성상 앞에 바치든지(Mary Queen of Peace, BP2157, F06103 Nice Cedex 2, France) 로 보내면 그 후 메주고리로 보내어 발현 목격자 비스카를 통하여 성모님의 발현 시간에 봉헌하게 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당신께 드리는 편지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올 성모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저버리신 적이 한번도 없으십니다. 저희 역시 당신께서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당신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 Macungie, PA 18062 평화의 모후 선교회) 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모든 기도 지향과 편지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고 비스카를 통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편집실 나눔 터 참고-



## 사제들에게 전하는 성체의 메시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땅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중재를 하는 일에 그대들의 삶을 계속 바치십시오.

번역 :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1993년 9월 1일

아버지께 바쳐진 십자가 위의 원죄 없으신 어린 양은 사랑의 제대위에서 아버지의 분노를 멈추고,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금 그대들 손 안에서 올려집니다. 몸과 피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지니고 그것을 찬미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펼쳐집니다. 자비와 사랑의 도구들은 바로 그대들입니다. 땅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대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중재를 하는 데에 그대들의 삶을 계속해서 바치십시오.

기도할 때 계속하여 모은 손들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새롭고 영속적인 계약의 상징인, 내 몸과 내 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손들입니다. 기도는 그대들을 그대들의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주며, 묵상은 거룩한 성체를 흠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며, 보다 깊은 일치를 하게 해줍니다.

나는 나를 먹으라고, 그리고 영혼들의 갈증을 풀어주라고 지속적으로 그대들을 부르며, 또한 나를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성시간에 영성적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느님은 그대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끝없는 사랑의 샘이 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지속해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가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생깁니다. 나와 하나인 아버지의 영은 매 순간마다 우리와 일치한 사람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렇듯, 삶은 우리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모든 사랑이 되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인들의 영혼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항상 나와 함께 하는 내적 성화로 부

럽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부터 그대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즉, 내 선물은 그대들 안에서, 그리고 그대들에게 내가 의탁한 양떼들에게서 내 사랑의 충만함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와 성시간을 간과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듯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나로부터 온 것보다는 그의 마음에서 온 것들에게 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성심만이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사랑만이 영혼들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보다 굳어진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온전히 나와 함께 일치하고 있을 때, 사랑의 순수한 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의해 구원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들의 하느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마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에게 떨어진 여러분 각자로 인해 비탄(Pieta)에 젖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대들이 나를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대들에 대한 이 사랑의 노력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자신의 죽음으로 실현한 사랑의 내 신비를 향하는 여정에 있어서, 보다 일관되고,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뉘우침과 화해의 은총을 주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스런 자녀들인, 그대들 모두 위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평온이 있기를 바라며 나는 그대들 모두를 축복하고, 모든 위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내 사랑의 망토를 그대들 위에 펼칩니다. 아멘. **M**



##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들이 성체를 흠숭하고 받아 모시며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인도하여라.

스테파노 급비신부  
성바오로 수도 공동체회 신학박사

(176. 79. 6.14. 가라반달(스페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천상 엄마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을 신뢰하며 계속 따라오너라. 엄마의 권고에 응답한 너희를 통해, 내 계획이 바야흐로 실현되려고 한다. 내 활동을 도와 다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께서 원하시는 사제들이 되도록, 너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니 말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즉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및 개인과 국가의 삶을 다스리실 터이니, (이러한) 그분의 승리가 없으셔는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지상의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무엇보다, 바로 그분이신 성체'의 개선으로 빛날 것이다. '성체'께서 다시 교회 생활전체의 심장이요 중심이 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흠숭, 감사, 찬미, 속죄를 위해 바칠 너희 모든 기도의 정점(頂點)이 되시리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모든 전례 행위의 중심이 되시리라.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구현(具現)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통해, 전례가 천주 성삼께 드리는 찬가로서 거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리라. 교회는 무엇보다 그분의 신적 현존이 너희 가운데 빛나도록 하기위해 세워진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암흑이 '감실'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너무도 큰 공허, 무관심, 푸대접이 감실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낱알이 의심과 부인과 모독이 늘어가니 말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심'께서 너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신 곳에서, (그러니 바로) 당신 자신의 집에서, 당신 자신의 제자들

로부터 또다시 상처받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열렬한 봉사자들이 되어라. 그분은 너희를 통해 다시 태어나시어, (성부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내주시는 분이니 말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들이 성체를) 흠숭하고 받아 모시며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인도하여라. 모든 사람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예수 성체'께 다가가도록 도와주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는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길러주고, 그들이 은총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러 나가도록 권고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성체께 대한)독성(瀆聖)죄의 물결을 막을 방벽(防壁)을 쌓아올려라. 지금만큼 합당치 못하게 영성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모(冒)영성체'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보다 못해) 너희 천상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온 것이다! 내가 몸소 '성체 안에 계시는 내 아들 예수님' 주위의 텅 빈 공간을 채워 드리고, 그분의 신적 현존을 에워싸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 작정이거니와, (이 일을) 내 소중한 아들들인 너희를 통해 하려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감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랑의 호위대(護衛隊)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M



## 볼세나 (Bolsena)의 성체기적

사람에게 생명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하얀 것 같지만 붉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으  
며, 빵 같지만 살이고, 돌 같지만 하나인, 그것은 그리스  
도의 몸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450년, '제대의 성  
사' 에 있는 묵상 문)

볼세나의 성체기적은 한 사제  
의 실체변화에 대한 의심에서 시  
작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성체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 1. 사제의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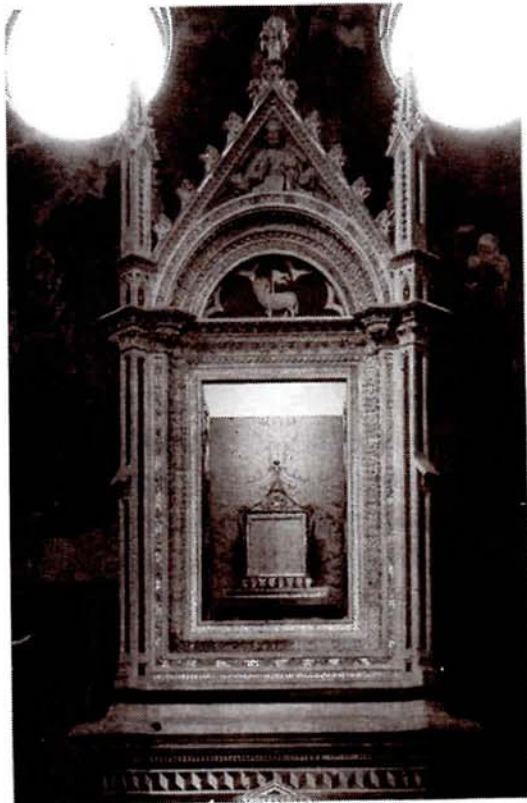
어느 사제의 성체의 의문에 답  
한 볼세나의 성체기적은 1264년  
여름의 끝의 어느 날, 이태리 중  
부, 라찌오 지방에서 있었다. 신앙  
과 성덕으로 유명한 보헤미아 출  
신의 어느 사제가 '실체 변화' 의  
교의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중요한 대성당들이 있는  
로마로 순례를 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  
가는 여정에서, 볼세나 도시 근처  
에 있는 크리스티나성녀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  
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현존하심을 미사의 축성 중에, 특히 성체에서 보기를 원  
했다.

이러한 의심을 품고 성체를 쪼갤 때, 그리스도의 참  
된 몸에서처럼, 성체의 하얀 원형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  
했다. 미사가 끝나고 성작들을 밑에 펼쳐 놓 아마로 된  
성체포를 보니 성체에서 흐른 기적의 핏방울 자국이 모  
두 25개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사제는 곧바로 1262년

부터 오르비에또 (Orvieto)에 계시던 교황 우르바노 4세  
를 만나서 이를 알렸다. 교황은 오르비에또로 기적의 성  
물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도시에 있는 성 마리아 프리스  
카 대성당에 보관하기로 했다.

우르바노 4세 교황은 성체의 기적을 확인하시고 그

당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토  
마스 아퀴나스에게 성체축복의 성  
사에 대한 경의로서 현존하시는  
'주님의 몸(Corpus Domini)'을 찬  
미하는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명하  
였다. 교황의 명을 받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기도문을 작성했  
는데 이 때에 성체를 흠송하고 찬미  
하는 이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 유명한 "성체 찬미가" 기도문이  
탄생되었다. 성물 함을 오르비에또  
도시로 이전할 때, 그리스도인 영  
혼들의 구원에 위한 교황의 근심  
과 오르비에또인들의 축제들과 즐  
거움이 함께 했다. 1264년에는 거  
룩한 성체포에 대한 어떤 경배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에 시작되어 1364년까지, 오르비에  
또의 대성당 성직자와 시민들은  
거룩한 성체포에 대한 경배를 계



기적의 성체포  
속했다.

### 2. 성물 함과 대성당

1280년이 시작되는 즈음에, 성물 함이 도시로 옮겨진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오르비에또인 들은 보다 큰 대성  
당을 건설하자고 결정한다. 대성당의 건설과 관련된 문  
서들에서 성체포 성물함의 세심한 배치를 기재한 것은



보르비에또 성당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동정녀 마리아' 를 위한 경외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물 함과 그 배치의 초기 역사를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1337년까지 문서들에서 사용한 자료들에 의하면 단순한 용기에 보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주교와 참사위원장은 성체포의 성물 함을 위한 아주 적절한 장소를 만들기로 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금과 은 그리고 에나멜을 사용한, 우골리노 디 비에리(Ugolino di Vieri)의 화려한 성물 함이 만들어졌는데, 그 형태가 오르비에또와 시에나의 고딕식 대성당의 정면과 유사하다. 이 성물 함에는 볼세나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의 장면들이 새겨져있다.

### 3. 기적에 대한 증언

오르비에또에서 체험한, 당시의 거룩한 증거의 이야기는 성물함의 에나멜화로 새겨진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14세기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몸 축일'(Corpus Domini,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을 지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황 우르바노 4세는 1264년, 오르비에또에서 교서 "Transiturus"를 반포해서 새 대축일을 제정하였으며, 이 대축일은 성령강림절 팔부 다음 목요일에 성체성사를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우르바노 4세가 새 축일을 세운지 두 달 후에 죽은 까닭에 그의 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클레멘스 5세(1311-1312)와 요한 22세(1317)가 이 교서를 새로 확인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전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M**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성모님은 가장 쉽고 빠르게 예수님께 가는 완전한 길이며  
우리들의 보호자이시고 은총의 중재자입니다.  
성모님을 당신의 어머니로 받아 들이십시오!

강 사 : 이종하 신부 (가톨릭 신문사 사장), 이창재 부제 (KSC 회장)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이정희 마리아,  
안희숙 엘리사벳, 이은경 줄리아, 최옥진데레사

일 시 : 2005년 3월 13일 부터 15일 (2박 3일)

장 소 : 벨티모아 한인순교자 성당  
58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주 최 : KSC

주 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협 찬 : 동중부지역 성령쇄신 봉사회

후 원 : 가톨릭 신문,

연락처 : 이정희 마리아 (703-680-9517/ C. 703-627-7395)



### "사제들은 신자들이 자주 성체에 대한 믿음과 공경을 증언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탠포드 추기경

부원장 지안프랑코 지로티 신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무일도, 제2독서 참조)이며 구원의 최고 기념제인, 성찬례는 희생 제사이며 성사이니 만큼, 교회의 일치를 완전무결하게 낳고, 초자연적 은총의 힘으로 지탱하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나아가 완덕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복돋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 성사를 향한 공적이고 사적인 경신 행위를 장려하고자 2004년 10월 7일 교황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Mane obiscum, Domine)를 발표하여 '성체성사의 해'를 제정하고 온 교회가 이를 거행하도록 했다. 이 한 해 동안 신자들이 "신앙의 신비"를 향해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지니도록 격려하며, 12월 17일 아래 서명한 교황청 내사원장과의 알현에서, 성체성사 공경과 신심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한 몇 가지 특정 행위에 더 풍요로운 대사를 수여하기를 바라셨다.

1) 모든 신자는 각자, 전대사의 일반적인 조건(다시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감실이나 성체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위에 열성적이고 경건하게 참여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는다.

2) 성직자, 봉헌 생활 회와 사도 생활 단 회원, 그 밖에 성무일도를 바칠 법적 의무와 순수한 신심으로 성무일도를 늘 바치는 사람들도, 위의 조건들을 채우고, 공동으로나 개인적으로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녁기도와 끝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는다. 질병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성당이나 경당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조배할 수 없는 신자들은, 그 장애 사유로 있어야 하는 곳에서는 모든 죄를 끊고,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위에 진술한 세 가지 전대사 조건들을 지키려는 의향을 가지고, 제대의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진심어린 열망과 더불어 영신 적으로 성체를 조배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은, 대사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들과 내적인 열망으로 결합하여, 일반적인 세 가지 전대사 조건들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겠다는 의향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이 앓는 질병과 어려움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 특히 본당 사제들은,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2004년 10월 15일에 발표한 제안과 권고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이 유익한 규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사제들은 언제나 너그럽게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을 지정하여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장엄하고 공적인 기도를 바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제들은 교리교육을 할 때에, 대사 총람 (Enchiridion Indulgentiarum) '대사의 일반수여' 제4조에 제시된 대로, 신자들이 자주 성체에 대한 믿음과 공경을 공공연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사 총람 '대사의 기타 수여' 제7항 "성체 공경과 성체 행렬", 제8항 "영성체와 신령성체", 제27항 "새 사제의 첫 미사와 주교 품이나 사제품 경축(25, 50, 60, 70주년) 미사 참여"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이 교령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에 발표된 날부터 성체성사의 해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이다. **M**

2004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 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 적 벌(暫罰)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대사는 보통 회년(성년)에 베풀어 지지만 회년이 아닌 경우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진다. 대사는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부 다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71~2조항 참조)

## 믿음으로 함께 할때 성모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메주고리에는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특히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서 회개하여 성모님의 품으로 돌아온 유능한 음악가들과 마약중독자들의 공동체가 있다. 그 들은 아름다운 음율 안에 현존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자신들의 회개와 체험을 전해주기에 많은 내적, 외적인 치유를 일으키고 있다. 그 곳을 찾아 온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변화와 함께 가슴속 깊이 새겨진 메주고리에의 음악을 잊지 못한다. 메주고리에의 본당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현존하시는 성모님을 전하고자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이 음악을 공급하도록 위임하였다. 메주고리에 성당의 마리오 신부는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1981년부터 근 23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이곳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음악들은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 교회로 돌아온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함께 할 때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모든 판매수익금은 메주고리에 본당의 고아원과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원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성모님의 메시지와 지향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 세속에서 신앙으로, 마약중독자에서 사제의 길을 향하게된 체험이 담긴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 온 사람들은 성 야고보 본당에서 드리는 거룩한 묵주기도, 미사, 성시간에 영혼을 깨워 주던 메주고리에 음악을 잊지 못한다. 순례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가슴 깊숙히 들어 오시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받는다.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던 멜린다와 마약 중독자였던 로렌드! 이들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게 된것도 성체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어둠속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 자신들의 기쁨과 체험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전해지기 때문이다.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한국말 성가와 음악,
- 성모님께서 매달 주시는 메세지 Tape 3 Set • 요조 신부님의 다섯개의 조각들
- 성모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 판매 수익금은 슬라브코 신부님의 고아원,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와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 LA지역 : 성 바오로 서원 (714-638-3855)
- 캐나다 지역 : 이 데레사 (403-288-0469)
- 평화의 모후 성물 센터 (323-730-1499)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져야만 하는 것이  
내 판단으로는 정당하다"

유리츠 츠빙글리(Ulrich Zwingli)

츠빙글리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진지하고 경건한 공경 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논문은 9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없는 것 같아 그 중 An Exposition of the Faith라는 논문에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혁 주의 교회의 창시자인 츠빙글리는 이 논문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영예를 빼앗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을 그녀에게 돌리려고 노력한다면 그녀 자신은 그러한 경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해 더욱 더 높게 찬양받고 그녀가 하나님인 그녀의 아들에게 더욱 더 경건하게 전념한다면... 그리고 그녀는 동정녀가 데오토코스, 즉 "축복받은 동정녀와 아브라함과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늘나라의 그것은 무슨 종류인 삶인가?" "당신은 두 사람의 아담을 보게 될 것이다. 구속 받은자 (아담)와 구속한자 (예수님)... 이사야와 그가 예언한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이처럼 츠빙글리도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축복받은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츠빙글리가 주장하는 그의 67개조에서 가톨릭의 많은 교리와 신조를 비판하고 있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공박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개혁주의의 창시자 츠빙글리도 성모님을 진지하게 공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M**

"성모님을 축복받은 동정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존 칼빈(John Calvin)

개혁주의 신학의 완성 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루터나 츠빙글리만큼은 아니었지만 성모 마리아를 진지한 태도로 공경했다. 칼빈은 마태복음 13: 53-58과 마가복음 6: 1-6의 성구를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우리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친척 관계라도 나타내기 위하여 히브리어 품에 일치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헬비디우스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때때로 성경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많은 아들들을 가졌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엄청난 무식함을 드러내었다."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2, 215p.) 칼빈은 요한복음 7:1-8의 주석에서 다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 아래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히브리인들은 모든 사촌 형제들과 다른 친척들을 포함시켰다."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2, 89p.)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칼빈은 방대한 자신의 기독교 강요 속에서 가톨릭의 교리 신조 등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상하리만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칼빈은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를 본받아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묻는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 강요 하권, 479p. 생명의 말씀 사)라고 하며 성모님을 거룩한 동정녀라 부른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칼빈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the holy mother of Christ)라고 부르고 있다. (392p.) 칼빈은 에페소 (431년), 칼케돈 (451년) 교회 호의를 거룩한 교회 회의들 이라면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회의들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천명한 회의이다. **M**

(알려드립니다. 제 24호에 기재되었던 "만민의 어머니" 기사 중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었던 것은 개신교에서 번역한 이 기사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고자 수정 없이 실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 34년만에 살인 혐의 누명을 벗은 한 사제의 용서

신부는 자백을 강요한 조사관에게 사제로서 고백성사의 비밀을  
밝힐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의 손톱이 모두 뽑히는 고문을 받았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에서 한 사제가 여자를 임신시키고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004년 11월 25일, 1960년대 케랄라 주에서 가톨릭교회를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진범 가족들이 베네딕트 오남쿨람 신부(찬가나체리 대교구)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오남쿨람 신부는 가톨릭 신자인 마리아쿠티를 임신시키고 죽였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그녀는 1966년 6월 16일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40대이던 오남쿨람 신부의 거처에서 피 묻은 옷가지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오남쿨람 신부 사건은 1960년대 말 그리스도인이 다수인 케랄라 주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법정은 그에게 강간 및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케랄라 고등법원은 1967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사제가 교회의 "금력" 덕분에 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팔라이교구의 은퇴한 가톨릭인 교사 토마스 쿠리엔은 자신은 지금까지 오남쿨람 신부가 교회에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남쿨람 신부는 디피카지와 의 인터뷰에서 마침내 진실이 승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찬가나체리대교구 그레고리 나두빌레담 신부는 "특히 오남쿨람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사제로서의 결백함이 입증돼 교회도 기쁘다"고 말했다. 칸지랍팔디교구 사무처장 제임스 탈라찰루르 신부는 오남쿨람 신부 사건은 가톨릭교회가 1960년대 말 케랄라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알버트 남비아파람빌 신부(가르멜회)는 오남쿨람 신부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리스도교 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끼친다"며 그 때 교회는 이 사건이 "음모"였음을 알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쿠리엔은 케랄라 교회 현대사를 통틀어 오남쿨람 신부만큼 고통을 받은 이도 없기 때문에 그를 성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남쿨람 신부가 1960년대 말 무죄로 풀려난 뒤, 찬가나체리 대교구는 그를 오지 공소로 보냈다. 이제 70대가 되어 은퇴한 그는 뉴델리에서 2650km 떨어진 고향 코타얌에서 친지들과 살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4일 한 할머니(93살)와 그녀의 아들과 손자들이 찾아와 마리아쿠티(당시 43살)가 낙태수술 중에 죽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사인 이 할머니의 남편이 마리아쿠티를 임신시킨 땅주인의 강요로 수술을 하다가 그녀를 죽였다. 이들은 책임회피를 위해 마리아쿠티가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칼로 찌른 다음 시체를 길에 묻고, 나중에 검시과정을 조작해 오남쿨람 신부가 한 짓으로 꾸며었다고 말했다.

오남쿨람 신부는 이들이 그 의사와 땅주인은 모두 죽었다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고, 그 후 이 의사 가족들은 병들고 집안이 망하고, 갖가지 병을 앓으며 많은 고통을 겪은 뒤 지금은 한 피정센터에 몸 붙여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의사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 피정센터의 한 상담원에게 이를 고백한 뒤, 오남쿨람 신부에게 용서를 청하라는 권유를 듣고 신부를 찾았다. 오남쿨람 신부는 자신은 이미 이들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이 가족이 찾아왔던 것을 거의 열 달 동안 밝히지 않다가 10월 21일 그 의사의 부인이 죽자 공동선을 위해 이를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두빌레담 신부는 이를 "아주 기뻐하며," 이 의사 가족의 고백은 죄 없는 이를 비난한 사람들과 하느님을 거스른 죄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 된다고 말했다. 뉴델리에 있는 간호교사인 로잠마 조스는 신부가 구금돼있던 중에 그의 손톱이 모두 뽑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남쿨람 신부가 고백성사의 비밀을 밝힐 수 없다고 거절해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M**

교회 운영 일간지, <디피카(작은 등)> 한국어판 UCAN통신/성바로로 선 교넷에서 인용.

## 성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않된단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단다.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어느 날 엘리나와 슬라비짜, 마리안나, 안드리아나 등 기도회원들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집에 모여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그때 성모님께서 엘리나에게 기도회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그렇게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단다. 내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기도회원들은 성모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해서 성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드릴 수 있었지만 완전하게 드린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에 담긴 뜻과 의미를 한 마디 한 마디 설명해 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화도 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그분은 화를 내실 줄 모르고, 오로지 너희에게 사랑만을 주신단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왜 그분을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손을 아버지이신 그분께 내밀어 보아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이신가? 를 묵상해 보거라. 우



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성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당신 스스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이보다 얼마나 더 너희에게 잘 해주시겠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단다. 너희들은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시다.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되도다. 라고 말하여라. 바로 이것이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

는 진정한 뜻이란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다. "당신의 나라 없이는 저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나이다. 당신이 안 계시면 저희는 나약하기 그 지없나이다."라고 말씀드리어라. 오 주님, 이 세상의 나라는 미완성의 연속이며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나이다. 아버지이신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뜻이! "오 주님,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즉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이 말씀은 천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을 열



마나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이구나. 주님,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천사들처럼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 주님, 저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양식을 주소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기도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소서. 지금, 오늘 그리고 항상 주소서. 이 양식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며 영원하시구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듯이!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죄들을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 예수여, 청하오니 당신께 충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너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듯이, 하느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기도 하여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선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에서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이러한 시험들을 겪을 때, 오로지 선과 삶 속의 과정 중 하나라 느끼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M**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기도"에서 발췌  
- 슬라브코 바바리치 신부저-

## 새해에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귀를 닦고 싶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 보다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가슴이고 싶어요

남을 탓하기 보다는  
배려할 줄 아는  
당신의 겸손이고 싶어요

판단하기 보다는  
과묵하게 살고 싶어요

날 칭찬해 줄 우리 아이의  
예쁜 언마가 되고 싶어요

날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남편의  
따듯한 아내이고 싶어요

늘 잔잔한 성모님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편안한 사랑이고 싶어요

누군가 날 찾아주는  
필요한 사랑이고 싶어요

한 해를 뒤로 하는  
초나한 마음 앞에  
정녕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 이정희 마리아 -

# 밤에만 전기불이 두 시간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들어 왔다 나갔다 해서 아예 등잔불을 켜고 산단다.

김 기수 신부  
맨하튼 성 프란치스코 의 아씨시 한인 공동체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문위원

1월24일 토요일

내일 아침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연길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빨래도 하고 일기도 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박씨가 몸이 허약한데 그런 몸으로 태국까지 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었다. 가다가 쓰러져 죽기라도 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에 기름기로 영양을 섭취하고 길을 떠나게 하고 싶었다.

다시 화룡으로 가서 편집사 가족들과 박철균씨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양고기 뽕 집에 가서 양고기를 사주었다. 런 집사 부인도 그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몸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김봉녀 할머니가 함께 도강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아직도 집에 계셨다.

박철균씨와 김봉녀 할머니로부터 북한 사정을 낱알이 들었다. 올해는 식량 사정이 더 비참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내는 구호식량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집단 농장이나 광산의 강제 노동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토지 (강제노동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이 산꼭대기나 못쓰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으로 허리가 구부러진 80된 노인들도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다.)를 해서 근근이 연명해 가고 있으며 할머니는 지난 한 해 동안 소토지해서 감자 두 가마니와 옥수수 두 가마니를 수확했는데, 그것으로 병든 며느리와 두 손자 손녀와 함께 겨울을 지내야 하고 요즘에는 점점 더 농사가 되지 않아서 (비료나 농약도 없고, 해충도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집단 농장에서 배당 받은 만큼의 수확을 못하면 오히려 개인들이 소토지 한데서 떨어져 바쳐야 하고 병이 나서 쓰러지지 않는 한, 어디가 아파도 강제노동에

끌려가 (그래서 7년 전부터 폐병이 들은 박철균씨의 폐병도 그토록 심해졌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 인구 십만이나 되는 무산시가 승용차나 버스 한대도 없고 밤에만 전기불이 두 시간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등잔불을 켜고 산단다. 등잔불 켜는 석유도 없어서 트럭에 사용하는 디젤유를 사다가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고 콧구멍이고 몽땅 새까맣다는 이야기 올 겨울에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한번 시작하니 끊임없이 나온다.

참으로 비참하고 답답한 세상이다. 몇 년 전에는 이리 저리 물어보아도 말들을 잘 안하고 자기나라 체제에 대해서 절대로 욕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다. 서둘러 연길 가려고 버스 짬 (버스 터미널)에 갔다. 그런데 설 연휴 때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버스를 탔다. 이곳은 버스나 택시를 타도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발이 시렵다. 이 버스는 유난히 무릎 아래로 춥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버스가 고장이 났는지 중간에 서더니 다른 차로 옮겨 타라고 한다. 그러자 승객들과 운전수, 차장이 한참을 언성을 높여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던 덩치 큰 사람이 운전수에게 가서 무어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다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참 희한하다.

또 한참을 오다가 용정을 넘어오는 언덕에서 버스가 아예 서더니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 운전사가 자동차의 덮개를 열고 무엇인가 한참 수리를 하더니 시동이 걸리고 다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일 아침에 박철



균씨와 어린 아들, 그리고 박씨를 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1월 25일**

일요일 아침 6시쯤에 화룡에서 오는 버스가 도착할 때쯤에서 나가기로 하고 일어나서 아침기도를 마치고 세수를 대충한 후 3일째 면도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해 모자를 쓰고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버스 짬으로 나왔다. 박철균씨와 어린 아들을 만나서 데리고 갈 사람을 만나러 갔다.

태국까지 가는 여비를 건네주고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과 성모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강복을 한 후 박철균씨와 어린 아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런 집사와 로파라는 마을에 가기로 하였다. 젊은 여성 두 명과 남자 두 명의 탈북자들이 오늘 새벽에 두만강을 건너와서 어느 집에 숨어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들이 입은 옷들이 비참하니 옷을 좀 구해오면 좋겠다고 하여 작년 겨울에 수녀님들이 가져다 놓은 여

자들 속옷과 이번에 내가 가지고 온 옷들과 장갑 양말 등을 가지고 갔다. 오늘 아침 내가 목장으로 들어가면 내일 월요일에나 만날 수 있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이 조마조마 떨고 숨어 있다가 공안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오늘 주일미사는 오후로 미루고 (잘 못하면 못 드릴지도 모르는데) 그곳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고 화장실을 못 가고 빈속에 주스를 마시고 나온 것이 탈이 났는지 중간에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 배를 움켜쥐고 간신히 참으면서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화룡까지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참았더니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중간의 주유소에서 내려 화장실을 갔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똥똥 얼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화장지가 있을 리 없다. 너무 급해 화장지를 챙기지 못해 난감했다. 다행히 주머니를 뒤져보니 손수건이 있다. 앞으로는 손수건과 화장지를 꼭 챙겨 다녀야겠다. 미국에서 살다오니 참으로 모든 것이 불편하다.

**감사드립니다.**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기도회 행사 추가를 후에도 CD판매를 도와주신  
 포트랜드의 이정은, 버지니아의 김멜라니아,  
 김미카엘, 박화영, 이마리아, 덴버의 박리사,  
 타코마의 민아우렐리오, 정세실리라,  
 뉴저지의 박프란치스카, 김기성,  
 뉴욕의 신동배, 한울리아나, 강분시아노,  
 필라의 서방지거,  
 오클랜드의 김가브리엘, 켈거리의 이데레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본당 주임)

지문위원장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성모님의 발현 목격자 비스카 이반코비치와의 인터뷰

### 성모님께서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나날이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 비스카, 당신은 지금껏 15년 동안 하느님의 어머니를 매일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 그 느낌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과의 만남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성모님과의 만남으로만 가능한 특별한 평화와 만족 그리고 기쁨이에요.

◆ 당신과 다른 목격자들은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 우리는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 왜 당신들과 이웃의 아이들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 되었나요? 당신 스스로 이 의문을 가져 본적이 있거나 이것에 대해 성모님과 이야기 해 본적이 있나요?

◇ 성모님께 왜 우리를 선택 하셨는가를 여쭙어 본 적이 있는데 성모님께서서는 그것은 성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성모님께서 목격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모님의 메시지의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성모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이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성모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나요?

◇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는 사람들이 기도, 변화, 단식, 참회 그리고 평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 당신이 성모님과 만남을 통하여 배운 것에 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며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성모님께서서는 특별한 것을 바라시지는 않아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거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성모님 메시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에 우리를 깨우 시려고 여기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 그러면 새로운 것은 전혀 없는 것이군요. 우리는 오직 성서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네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한 크리스찬의 記述(기술: 성서)에 대해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멀어져 있나요?

◇ 글썄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야겠죠.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마음으로의 기도는 결코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에 대하여

◆ 15년 전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성모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반복해도 충분치 않으니 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성모님의 주요 메시지는 기도, 변화, 단식, 참회 그리고 평화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직 말로써만 하는 기도는 요청하시지 않으셨어요. 성

모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나날이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한 예로, 성모님께서는 "너희는 가정에 있는 화분에 매일 조금씩 물을 준다면 그 꽃에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꽃과 같이 자라고 발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틀, 아니 그 이상 물을 주는 것을 포기한다면,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말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종종 "난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내일하지 뭐. 그리고 내일이 오면 모레..."라고 말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매일 기도로부터 우리 스스로 나쁜데서 오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꽃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마음으로의 기도는 결코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나날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으로서 살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식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 환자들에게는 빵과 물 만으로의 단식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들의 두통이나 현기증 그리고 강한 의지의 결핍으로 단식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은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단식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나는 평화의 모후이며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오직 세상에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과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평화가 없다면 그러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더욱이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변화어로 초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우리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 항상 성모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기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모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미사를 삶의 첫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사는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시며 우리가 마음에 그분을 모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장 훌륭한 예의를 갖추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고백성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일상적인 습관으로 해서 안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를 벗어나고 성체 성사안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며 보속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M**

(평화의 오아시스에서 발췌 -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 요조 조브코 신부께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서한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보호하십시오!

우리의 성모님의 말씀을 보호하십시오!



2002년 8월 24일 토요일자

그레이브의 일간지 'The Vecernji List'

"바티칸의 놀라운 제스처, 교황님이 메주고리예에 대해 요조신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다!"

표지 사진은 1992년 보스니아 전쟁이 한창일 때 교황성하께서 요조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

당시 교황성하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보호하십시오! 우리의 성모님의 말씀을 보호하십시오!"라고 요조 신부에게 말했다.

"The Vecernji List" 웹사이트 <http://www.vecernji-list.hr>

헤르체고비나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신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조 조브코 신부는 폴란드의 순례자들로부터 지난 21년간 메주고리예 발현의 증인이 되어준 것에 대한 교황성하의 감사의 뜻을 전해 들었다. 특히, 그들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떨리는 손으로 직접 서명이 된 감사의 서한을 전해주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웠으며 놀라워했다. 교황성하께서는 폴란드로부터 돌아온 즉시 요조 신부에게 개인적인 감사와 그분의 사도직에 축복을 보내는 서한을 쓰셨다고 한다. 교황성하의 협력자인 크리스티나 그레고리치크는 감사의 서한을 시로키 브리예크 교회의 요조 신부에게 전하면서 '우리 폴란드는 당신이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한 모든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본지와와의 인터뷰 때 요조 신부는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많은 선물들과 감사의 편지를 받았지만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우면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요조 조브코 신부는 메주고리예 성모발현의 증거자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제의 한사람이 되었다. 많은 단체에서 그를 지도신부로 세웠고,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와 관련이 되기도 하였다. "데일리 가톨릭" 사가 실시한 투표에 따르면, 요조 신부는 스물아홉 명의 "금세기의 가톨릭교도" 중에 한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JP)



- 요조 신부님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교황님의 서한을 읽는 모습. 사진 왼쪽에 있는 신문에는 '교황님이 요조 조브코 신부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다' 라는 기사가 함께 실려 있다. -



#### 이태리 원문

"Imparto di cuore una particolare Benedizione Apostolica a Padre Yozo Zovko, o. f. m. ed invoco nuova effusione di grazie e favori celesti e la continua protezione della Beata Vergine Maria" Joannes Paulus II

#### 한글 번역

"나는 요조 조브코 신부 O.F.M.에게 마음 깊이 부터의 특별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은총과 천상의 은혜가 새롭게 넘치기를, 그리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끊임없는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 테니스와 케시 놀란

바티칸에서 교황성하의 협력자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나는 메주고리예로 출발하기 전에 다른 몇명의 폴란드 사람들과 함께 교황성하와 아침식사를 하였는데, 교황성하께서는 크리스티나가 보는 앞에서 서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한다. 크리스티나에 의해 요조 신부에게 구두로 전해진 메시지에서, 교황성하께서는 요조신부가 그동안 해온 일과 하고 있는 메주고리예를 위한 사도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교황성하께서 그에게 지지하는 표지를 전하게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교황성하께서 아침식사 동안 매우 기뻐하셨고, 메주고리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 또한 폴란드인 순례자들이 말하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체험들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셨다고

한다. 물론, 이 놀라운 사건(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한은 교황성하로부터의 최초로 글로 쓰여지고, 미디어에 의해 알려진, 메주고리예를 증언하는 격려의 말이다. 이 서한은 교황성하의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와 격려가 담긴 현실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문서로써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 모두에게 이 소식을 알립시다! 교황 성하께서 메주고리예와 우리 성모님의 발현의 투사인 요조 신부에게 이러한 진심으로부터의 축복을 보내셨다는 것을! **M**

Children of Medjugorje

Email: [dnolan@childrenofmedjugorje.com](mailto:dnolan@childrenofmedjugorje.com)



### 나의 한발이 지옥을 닫고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패트릭 과 낸시

메주고리에에 사는 사람이면 패트릭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사람인 그는 부인 낸시와 함께 매일 3시간의 저녁미사에 참여하며 크로아티아 말로 진행되는 긴 강론 동안 목주기도나 브리지트 성녀의 기도를 드리는 그를 우리는 종종 본다. 그는 자신이 메주고리에를 통해 변화되기 전의 과거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56살이며, 그 동안 세 번 결혼했고, 두 번 이혼했다. (두 번다 나의 바람기 때문에) 나는 캐나다에서 30년 간 자동차 사업을 해왔고, 몹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살았다. 나의 유일한 신은 돈이었고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갖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의 큰 아들이 "아빠,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의 손에 20 달러짜리 지폐를 쥐어 주며, "이게 바로 네 하느님이다. 이것을 많이 모을수록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셈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낸시와 결혼하지도 않은 채 수년간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난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

7년이 지난 후, 우리는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헬리콥터를 전세 내고 악단을 초대하여 뉴-에이지(New a Age)음악을 연주하는 최고급 결혼식을 산 위에서 올렸다. 그런데 결혼한 지 6주가 지나자, 아내가 불만을 터트렸다. "우리는 결혼 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한 느낌이 들지 않는 다구요!" 내 대답은 간단했다. "여기 우리 결혼 증명서가 있지 않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혼식 때에 어머니도 오시지 않았고, 성당에서 혼배성사도 치르지 않았잖아요?" 라고 그녀가 반박했다. "종소. 정당신이 원한다면 성당을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때서야 나는 20년 전에 내 전처가 결혼 무효 소송을 내어 승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나와 낸시가 천주교회에서 혼배성사를 올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후 "티 없으신 성모마리아 성심"이라는 성

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혼배성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았지만 그냥 형식에 불과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해성사는 아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지, 가톨릭 교회로부터 혼배성사 증명서를 한 장 받았다는 것뿐이다. 그 당시 나의 네 아이들은 알콜중독, 마약중독과 이혼 등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부모에게나 아이들 문제는 있기 마련이기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싸다가 어떤 소포 하나를 찾았다. 낸시는 그 소포를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자, 무신론자 남편님! 이제 당신한테 이 소포를 넘겨 드렸으니, 누군가가 뜯지도 않은 채 버린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겠지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나는 소포를 풀던 토요일 밤의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것은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는 낸시의 남동생이 우리를 위하여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들을 모아 정성스럽게 번역하여 보내준 것이었다. 내가 평생 처음으로 읽은 첫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부르려고 왔으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읽는 바로 그 순간 내 가슴에 찡한 그 무엇이 느껴졌다. 한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물은 쉬지 않고 내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나는 메주고리에의 메시지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내가 읽은 것이라고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부르려고 왔으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부였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바로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려고 왔다." 고 하시는 성모님의 두번째 메세지를 읽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온 가톨릭 교리



"가족 중 누구라도 먼저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나머지는 성모님께서 도와주신다."

가 전부 사실이라는 것과 성서는 하느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내 마음과 영혼 깊숙이 뚫고 들어올 때까지 읽었다. 나는 무지개를 쫓아다니던 끝에 이제는 황금이 담긴 항아리를 찾은 것이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 오레곤주 유진(Eugene)에서 성모 마리아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낸시에게 "자, 우리는 그 모임에 가야 해!" 라고 우겼다. "집은 어떻게 하구요?" 라고 낸시가 물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운전을 해서 그 모임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나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나는 메주고리에, 파티마에 관한 소책자들과 곱비 신부님이 쓰신 책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미사 중의 치유 예절때 켄- 로버츠 (Ken Roberts) 신부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를 읽은 이후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자제할 수가 없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모님께 말씀 드렸다. "복되신 어머니, 제 아이들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였는지 잘 압니다. 당신께서 저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네 아이들을 성모님께 봉헌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으나 그 이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마약에 중독 되어, 16살의 나이에 퇴학을



당한 내 아들이 회개하여 영세를 받고 성직자의 길을 고려하고 있으며 메주고리를 다녀오기 전 악명 높은 불신자였던 둘째 아들이 고해성사와 첫영성체를 하고 신앙을 찾았다. 남은 두 아이와 부모님들도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아이들 중 하나는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회"에 입회하여 성직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가족 중 누구라도 먼저 한 발을 내디디면, 메주고리

에 메시지에 먼저 감화를 받으면,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족 전체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다! 나는 메주고리에 메시지를 읽고 일주일도 못되어, 낸시에게 "자, 메주고리로 가서 삽시다!" 라고 말했다.

993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일푼으로 이곳에 온 우리는 3일 만에 낸시가 요조신부님의 통역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일해서 집도 마련했다. 그전까지 나는 한발을 지옥에 담근 채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메주고리에 메시지는 나의 삶에 많은 은총과 함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분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분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되풀이되는 이혼속에서 돈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성모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으며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내 힘이 닿는 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 **M**

(메주고리에의 기적에서 발췌)

## 11박 12일간의 동거

그들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진지한 모습과 열정에 빛나는 눈!  
바로 거기에 우리가 뵈고 싶어 갈망하던 성모님과 주님이 계셨습니다.

서정희 안젤라 아틀란타 한인성당

안녕하세요, 평화의 모후 27차 메우고리에 순례단 여러분! 어제,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요세파, 신디아씨, 세실리아씨, 필라에 계시는 우리들의 큰 언니 마리아씨도 전화가 왔어요. 신디아씨는 제 꿈을 꿔다길래 들이 열심히 꿈 해몽을 했습니다.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큼 행복하게 있을까요? 순례기간 그 며칠간의 동거에 이리도 마음을 뺏기고 울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 유진이와 메우고리에 청소년성체대회 참석을 위해 내린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동행자 여러분들과의 첫 대면은 조금은 긴장되었지요. 그런데, 주위의 어떤 것에도 무심한 듯한 수도승 같은 모습을 한 오렌지 성당의 조 민현신부님과, 커다란 눈을 껌벅이며 어깨를 짚히고 팔자 걸음으로 걸어오는 우리의 인솔자 남 그레고리오씨를 보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움을 느꼈답니다.

신디아씨,

우리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하게 된 님은 풀이었지요. 그리고 아씨시 angels 성당 앞마당 어둑한데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우리는 저무는 7월의 산들한 밤 바람을 즐기며 가까와졌지요. 다음날 저녁에는 로마 시내에 앉아, 돈주교 길거리 화가의 모델도 되기도 했지요. 그 때 10분 만에 그려진 저의 초상화는 지금 별 대접을 못 받아 벽에 걸리지도 못한 처지랍니다. 참 많이 기대하고 들어간 바티칸 궁전에서는 미로를 헤매며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다 끝도 없는 작품에 싸여 끝내는 멀미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후의 심판' 벽화는 아직도 내 눈에 어른거리네요. 무더운 더위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베드로 성당등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폭력에 스러져간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지요. 콜롬세움에서는 인생의 무상에 마음이 숙연해지며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미지의 세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점점 익숙해지며 일상에서 지고 온 짐들을 하나씩 벗어 훌가분해져가는 마음으로 차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로마에서 피자, 스파게티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건 지금도 참 아쉬운 일로 생각되네요. 그건 우리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멀리 가셔도 한국음식에 집착하는 우리의 촌스런(?) 식습관을 나무라야지 어찌겠어요.

나의 룸메이트 요세파씨,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슬며시 웃으며 다가오던 당신을 보면서 난 갑자기 외딴길에 핀 코스모스가 생각났답니다. 로마에서 크로아시아로 나르는 비행기를 탈 때 쯤엔 무척 지쳐 있었는데도 메우고리에에 대한 기대로 나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시골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리던 그 바닷가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도장을 찍은 듯 생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다 저 너머 마을들의 불빛이 마치 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려 바다에 떠있는 듯 했지요. 별들의 총총함과 바다 중간에 떠있는 듯한 마을의 불빛이 서로 연결되어 하늘이 바다인 듯 바다가 하늘인 듯 하였지요. 바다는 신기루 처럼 시야에서 왔다갔다 하고 유난히도 휘영청 밝은 보름달에 비쳐 은빛 반짝이는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그 풍경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한밤중에 보스니아땅 메우고리에 숙소 에 긴 여정의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맨발로 뽀족한 돌을 밟고 발현산을 오르면서 청소년 성체대회의 하루를 맞이했지요. 매일 저녁 6시부터 묵주기도와 미사시간, 그리고 성시간이 차례로 있었지요. 특히 성시간에 자 같이 무릎뺄속까지 박히는 듯한 고통속에서도 끝까지 꿇어앉아 눈시울을 붉혀가며 기도에 임하는 요세파의

모습은 너무 진지하여 아름답기까지 하였지요. 요세파의 그런 진지함이 내게 많은 자극이 되어서 당신처럼 열정적이지 못하는 나의 신앙에 얼마간의 회의와 갈등이 오고, 또 무더운 성당마당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분위기에 젖지 못해 걸돌면서 나는 혼자 외롭고 우울하기도 했답니다. 밤에 발현산을 돌아 십자가산으로 촛불 행렬을 할 때는 대문앞에 불 밝혀두고 우리를 맞이하는 이웃들의 모습에서 참으로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요. 그리고 각국 나라말이 어우러진 우렁찬 젊은이들의 기도와 성가는 온동네를 깨우고 동시에 나의 마음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행진을 마치고 신디아와 밤늦은 저녁을 마침내 버르던 피자로 해결했지요. 그때 먹은 불가마에서 갓 구운 피자의 맛을 생각하면 지금도 군침이 돕니다.

#### 세실리아씨!

늦게 합류한 세실리아씨가 가족사진을 곱게 품고와 아픈 아들을 위해 성모님 발현 단상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가슴을 참 시리게 했답니다. 성모님의 생일인 8월 5일날, 발현산 중턱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외딴 곳에 자리한 하얗고 조그만 십자가에서 우리는 Happy Birthday를 부르며 성모님의 생신을 축하드렸고, 세실리아씨에게 장미향으로 답을 해 주신 그분의 특별한 사랑에 무척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네요. 저도 세실리아씨가 받은 그 큰 선물에 참 기쁘고 감사했답니다. 참, 마지막날 십자가산에서 새벽 5시 미사를 드리던 날을 기억하세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서리가 입으로 뿜어나오는 추운 새벽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간 그 십자가산 꼭대기에는, 놀랍게도 벌써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가득했었지요. 그 새벽 미사를 위



해 전날 저녁부터 미리 올라와 밤을 새운 사람들이 추위에 움추린 모습으로 이불을 둘러쓰고 앉은채로 혹은 누운채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진지한 모습과 열정에 빛나는 눈! 바로 거기에 우리가 뵈고 싶어 갈망하던 성모님과 주님이 계셨습니다. 성가는 산으로 퍼져 메아리가 되어 오고 기도소리는 온 산을 덮어 아침 새벽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산 곳곳에 서서 새벽 추위에 덜덜 떨며 기도하고 내려오던 그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 마리아자매님, 안드레아 형제님!

돌아오는 마지막날 아드리해 바닷가에 모여 앉아 조신부님의 신부가 되기까지의 역사와 그레고리오씨의 체험담을 들으며 우리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지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생각 나네요. 점심시간 때에 쌀 사오고 상추 사와서 맛있게 밥을 지어주시던 언니같은 자매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겨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두분의 사랑은 저희에게 참 많은 배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곳을 들어올때 각자의 근심에 집착하며 기도하던 우리는 어느새 마음을 텅 비운채 너무나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지요. 돌아와서도 우리는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성모님은 거기 간 우리 누구도 빈 손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 가슴에다 당신 사랑을 심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기쁨으로 우린 참 행복해 했지요.

이제 그분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과 거름을 알맞게 주어야겠지요. 그 씨앗이 얼마나 탐스럽고 예쁜 꽃을 피울지는 우리 각자의 몫일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씨앗이 자라 꽃이 핀 날 그 향기를 여기까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M

## "사랑하는 사람들을 메주고리에 학교로 보내고 싶은 가박요"

박태찬 요한 (포틀랜드 한인 순교자 성당)

저는 2004년과 2005년을 마감하고 시작하는 때에 메주고리에 다녀온 오래 곤주 포틀랜드에 사는 중년남자 세 명을 대표하여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남자 셋이 메주고리를 다녀온 것은 오래 전부터 염원해 온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 무지하고 우발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사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니 Spelling이 복잡하여 나타나지도 않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기는 커녕 이름 없는 작은 곳으로 여겨졌고 그 사실이 오히려 흥미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여정을 시작했고 런던에서 다른 일행들과 만날 수 있었지요. 그곳에서 자그레브

사람은 메주고리를 우리가 사는 포트랜드에서 두 세 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피정 장소로 생각했고 한사람은 성모님 발현 모습을 TV 중계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생방송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이 극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여 따라 나섰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옛적에 마누라 따라 한번 가 본적이 있는 경험자 입장에서 '네가 가면 나도 가' 라는 동반 조건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격으로 여정에 올랐습니다.

신뢰 할 수 있는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초대 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상 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요.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순례 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셋 모두 억지로 밀려간 것이 아니라 자유의 지로 'OK, 가보는 거야'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성모님이 초대하셨건 안하셨건 우리가 OK 했으니까 다녀오게 된 것이지요. 성모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이 주신 의지로 응답을 했으니까 비슷하다고 쳐주세요. 12월 27일 출발하기에 앞서 메주고리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하고 세계지도를

-스프릿트로 갔는데 포트랜드를 떠나 몇 시간 비행기를 탔는지 쫓아 보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인 것은 확실해요. 여행이 아닌 순례라는 사실에 몸을 맡겨 그런지 몸은 피곤했지만 불만스럽지는 않았어요. 스프릿트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밤길을 세 시간 정도 달렸는데 창밖에는 밤바다가 보였고 또 높은 산맥도 넘는 듯 했지요. 그 길부터는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의 순례안내가 시작되었고 함께 바치는 목주기도 그리고 성모찬송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가 깃들었지요.

우리는 드디어 메주고리에에 도착했고 야고보 성당 성모님 앞에 모여 기도도 신고 드리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이 현지 시간으로는 자정에 가까운 때였지만 호텔에서 차려준 저녁식사는 김치 깍두기는 없어도 무척 맛있었어요. 백 운택 지도신부님, 남 그레고리오 팀장님, 그리고 남자 넷, 여자8명의 총 14명의 팀이었는데 내방의 침대에 누워 메주고리에 첫 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한국으로 따진다면 산간낙시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랄까요. 불거리 먹을 꺼리로 따진다면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늘의 별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고 성모신심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마을 전체가 신성함속에

메주고리에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전해지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우리 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웠었는데 이번 순례 기념으로 담배를 끊어 실행에 옮겼고 저는 허공에서 느끼는 하느님, 성모님을 구체적인 체험을 통하여 다정하게 느낄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는 은총을 구해보면서 잠을 청했지요. 송구영신의 순간을 장엄한 미사와 특히 새해 0시를 기해 시작된 성시간의 성체현시의 시간은 타임스퀘어, 라스베가스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순례여행에 대한 체험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알고 간 것도 아닌데도 무척 좋았으니 그 좋은 것을 직접 맛보시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남자 셋은 기도하는 동안에도 심각한 표정이 아니었고 왜 그리 웃음이 나오는지 많이 웃어서 참 좋았지요. 무지하며 우발적으로 올랐던 메주고리에 순례 길에서 돌아 온 것은 1월 6일, 우리는 대부분의 일정을 메주고리에에서 지냈고 떠나오는 날 하루 드브로브닉의 아름다운 항구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귀가했지요. 우리 일행 중 아무도 메주고리에에서 시간이 지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떠나기 아쉽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글을 1월 15일 날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남자 3명은 엇그제 부부동반으로 여섯 명이 함께 모여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 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실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남자의 순례 기행문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담배 끊기로 한 형제는 아직도 실행 중에 있으며 지금은 남이 피는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고 하는군요. 우리 셋은 Wife 들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음 순례 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낸다는 표현이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순례하였던 다른 자매님들도 남편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메주고리에 학교로 보내고 싶은가 봐요. 맞아요, 메주고리

에는 신앙 학교, 사랑학교, 평화의 학교 그리고 구원의 학교라는 생각이 맞는 말이지요. 우리도 그냥 들어갔는데 치유가 이루어지고 뭔가 좋게 달라졌습니다. 성숙해졌다고도 볼 수 있구요. 또 한마다 드리고 싶은 것은 성모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과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만져질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세상에 떠들썩하게 오신 게 아니라 지구 한 구석 조그마한 마을에 오셨었는데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일을 깨우쳐 주시는 듯 조그만 마을 메주고리에 라는 곳에 순박한 아이들에게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한 모퉁이에서 선포된 기쁜 소식을 믿으신다면 지금 메주고리에 라는 조그만 산간마을에서 전해지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M**

**"내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다오!"**

나는 너희들을 부른다. 나에게서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너희의 이웃들과 화해하여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나를 돕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내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다오!

(2004년 12월 2일 미리안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 성모 성심께 우리의 삶을 봉헌합시다!

오 수산나 아틀란타 한인 순교자 성당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사이3:1).'

이 말씀은 영세를 받은 날부터 늘 저의 뇌리를 따라다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참으로 딱하신 주님, 천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문해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곳을 상상하는 것이 낙이었고, 힘들 때마다 그냥 버릇처럼 그 곳을 염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상상하면서, 그 곳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행렬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피난 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피난(순례)의 길을 걷는 행렬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몇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대궐 같은 집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눌러 앉아 그 피난길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갖은 곡식과 금은보석을 싣고 휘청거리는 소와 승강이를 벌이며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 싸우고, 넘어지듯이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화해시키며 주저앉는 이들을 일으켜 함께 걷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어린 아이는 이것이 피난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듯이 평화로운 미소로 웃으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배낭도 메지 않고, 힘차게 앞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닐 때 돈 주머니도 식량자루도 신도 지니지 말 것이고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지도 말라(루가 10:4)'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조금 더 지켜보노라니, 가다가 목이 마르면 엄마에게 달려가 물을 마시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달려가 음식을 먹고 가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 물어 보고 가다가 피곤하면 엄마 무릎을 베게 삼고 잠을 자고는 다시금 걷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온전한 희망과 신뢰 안에 그냥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묵상 중에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오 18:3)'라는 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서 그 목적지를 가 본 사람을 꼭 붙들고 전심으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쉽고 안전하게, 또 빠르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어린 아이가 의탁하던 그 엄마가 나에게도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먹고 입고 키우고 재워주면서 이 피난길을 이끄는 엄마 말입니다. 이 묵상은 또한 우리가 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쉽게 가려면 그 곳을 오가시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듯이 모든 것은 엄마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의탁할 때 세상과 피조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서, 천상의 빛을 받으며 희망과 신뢰 속에 천국을 염원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아주 기쁘게 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희망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봉헌하는 삶을 삽시다. **M**

# Pope's Homily for World Day of Peace

## "Conquer Evil With Good"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homily John Paul II gave yesterday during the Mass that he presided over on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It also marked World Day of Peace, whose theme was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1. "Hail, Holy Mother! The child to whom you gave birth is the King of heaven and earth for ever". On the first day of the year, the Church is recollected in prayer before the image of the Mother of God and honors with joy the one who gave to the world the fruit of her womb, Jesus, the "prince of peace" (Isaiah 9:5).

2. It is already a consolidated tradition to celebrate on this same day the World Day of Peace. With this motive, I present with joy my fervent desires to the distinguished ambassadors of the diplomatic corps to the Holy See. I direct a special greeting to the ambassadors of the countries particularly hard hit in these days by the enormous cataclysm that befell them. My thought is also directed with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Secretariat of State, guided by Cardinal Angelo Sodano,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and in particular its president, Cardinal Renato Martino.

3. The World Day of Peace constitutes an invitation to Christians and to all people of good will to renew their determined commitment to build peace. This supposes the welcoming of a fundamental moral demand, well expressed in the words of St. Paul: "Do not be conquered by evil but conquer evil with good" (Romans 12:21). In the face of the many manifestations of evil, which unfortunately afflict the human family, the high-priority demand is to promote peace, using consistent means, giving importance to dialogue, to works of justice, and educating in forgiveness (cf. Message for World Day of Peace 2005, 1).

4. Conquering evil with the weapons of love transforms the way in which each one can contribute to the peace of all. Christians and believers of diverse religions are called to walk this path, together with those who accept the universal moral law.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promoting peace in the world is our common mission!

*May the Virgin Mary help us to carry out the words of the Lor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 Message of January 25, 2005

Dear children! In this time of grace again I call you to prayer. Pray, little children, for unity of Christians, that all may be one heart. Unity will really be among you in as much as you will pray and forgive. Do not forget: love will conquer only if you pray, and your heart will open.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 Reports from Sr. Emmanuel

## The Children of Medjugorje



On December 2nd, Our Lady gave an overwhelming message through Mirjana. She was obviously in need of our special help. She pleaded, saying,

***"I need you! I am calling you! I need your help! Reconcile with yourself, with God, with your neighbors. In this way you will help me. Convert the non-believers. Wipe the tears from my face!"***

On Christmas day, just a few hours before the earthquake happened, Baby Jesus called us to peace and Our Lady asked us, "to be courageous witnesses of the Good News in every situation."

The events in Asia, which have put the planet in a state of shock, seem to explain part of the reason why our Blessed Mother is calling us in such a dramatic way! It is far from me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that come up - "Why did this happen; is it a chastisement?" "Why did God allow this?" "Are these catastrophes going to be followed by other ones?" etc.

I'm neither an angel nor a prophet to know such answers! But what I know for certain is the message that Our Blessed Mother has expressed many times in the past 23 years of apparitions: ***"Through fasting and prayer one can stop wars, one can suspend the laws of nature"***(07/12/82). (See PPS)

Therefore, let's look into the future now and make sure we decide to do what is necessary to PREVENT more disasters from happening. Our Lady did tell us that ***'Satan wants to destroy nature and even the planet on which you live'*** (01/25/1991). She said, ***'He wants war'!***

(09/25/2001), and, ***"[Satan] desires, by every means possible, to ruin everything in you"*** (03/21/1988). She also said, ***"Hatred reigns in the world"*** (11/25/2001). But all of this can be reduced to nothing if we remember the most powerful tools she has given us in order to defeat Satan!!

***"With a humble prayer and an ardent love, one can disarm him"*** (08/1985).

Actually, if we are in the state of grace (if we are not attached to serious sin), each of our prayers from the heart will make him afraid and disarm him. He is afraid of a child of four who prays, said Little Flower! If only we realized how powerful we are when we simply live the Gospel and the messages of our Heavenly Mother!!

We have been asked if this catastrophe is the beginning of the secrets. No, because the secrets will be publicly revealed 3 days ahead of time by the priest chosen by the visionaries. So far, none of the secrets has been revealed.

Here is what I'd like to say about the whole situation: The whole world is in a state of shock because at least 225,000 people have perished in this terrible tragedy. We don't have enough tears to shed. But, where is the worse tragedy? For years,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away from God, enemies of His commandments, letting their souls be taken by the darkness of sin. Thousands of children have been abused and shown terrible example. Evil laws have been enacted, breaking families and teaching abominations to the young people even in schools. The list goes on. But why don't we make as big an effort to alleviate these spiritual evils as we do today to rescue the victims of the tragedy in Asia? Is not the human immortal and the earthly body passing away? It is indeed a wonderful charity to send help to the victims! What an awesome proof of a good and compassionate heart! However, we have to consider the other component of charity, I mean the salvation of the eternal souls of the children of God! The question is: what shall we really spend for this?? What shall we offer up?? Why have we neglected the best remedies to counter the Enemy who wants to cast man into the eternal abyss?? As Jesus said: "And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fear him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Matthew 10:28).





## Fr. Jozo's Talk in Siroki Brijeg

Obviously, it is not by chance that we received Our Lady of Fatima as our pal for this year! WOW! She came to help stop the 1st World War and, more generally as in Medjugorje, the wars in our hearts due to our being far from God. She'll help us greatly IF we do what she asks; if we too help her! As simple as that! Yes, it takes courage to make the moves inspired by the Gospel, in the midst of this materialistic world that floods the very heart of our homes! But what a deep joy it is to belong to Jesus and to His Mother! Let's collaborate with her and spare many lives! Let's spread her protective mantle over entire regions of the world! We can make the plans of the Evil One fail and prevent him from wreaking his destruction! "If you knew, dear children, the value of the least of your prayers," said Our Lady, "you would pray unceasingly!"

**A concrete proposal:** Help the Blessed Virgin as never before! If you want, you can send her a love letter, telling her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order to answer her call of December 2nd. It could be an effort of fasting, a rosary every day or a holy hour before the Blessed Sacrament, a concrete move for reconciliation, a good confession, the restoration of your family prayer, a Mass celebrated for Our Lady's intentions; you'll know in prayer what to offer! Then you can either put that letter under her statue, or send it to us at: "Mary Queen of Peace", BP 2157, F- 06103 Niç cedex 2, France - From there it will be brought to Medjugorje and given to a visionary. In his way, Our Lady will have it during an apparition. (She loves letters!)

The fourth message is the call to fasting. Tomorrow is Wednesday. It is a day of fasting. Even tonight we can simply say, "Lord, Blessed Mother, tomorrow I will not eat. Tomorrow, I want to have more time for love. And through my sacrifice, I want to express my love." Yes, even now I decide to do something for you. What can I suffer for Our Lady, Mom? Can we not suffer anything

for Our Lady? Dear pilgrim, can you and I not fast tomorrow? We can. We must. We need to! That we may be freed from our selfishness and egoism, from the manipulation around us. Because we are manipulated, so much advertising around us, all programs, all journals. Who can free me? Who can free me of that manipulation? Our Lady tells us, "Start to fast." The fifth message is the call to monthly confession. That is the sacrament through which peace flows, the spiritual anointing, forgiveness. I ask you to remember. I desire as your brother, as your friend and the one who loves you, the one who places you in his heart and promises to pray for you and your families and your intentions, as such a desire to say something that is above all - there is no confession without a priest! Perhaps this is the greatest reason why the Anglican pastors want to be Catholic, to leave sin. Jesus gave the priesthood. In the Hall of the Last Supper, our Holy Father wrote a most beautiful letter to us, in the Hall where the priesthood was born and again reminding all of the priests on the greatness, on the grace, of the source of where and how the roots began. When Jesus said, "How fervently I long to be this night with you." Why? Because He desired to give the priesthood to us. And He gave it.

***Without the priest there is no forgiveness of the sins. There is no Eucharist. And practically speaking, there is no Church. Let us start to pray for priests.***

On the eighth of October, on Sunday, the Holy Father has called all the bishops of the world to come. Perhaps even those who are afraid of flying will come. Because there are four hundred and fifty bishops in the United States alone. But even if they are afraid to come. What does the Holy Father ask of us? He wants us to be like His apostles, to be His Church, to consecrate the Church to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We are in a time of grace. We are apostles. We are to love. We are to pray with love, to pray with confidence.

***Pray for priests. Pray for Holy Priests***

.I would ask you one thing. I would ask you not to forget Our Lady's messages. I ask you never to forget Medjugorje. I beg you not to forget Medjugorje! I beg you not to betray Medjugorje! I beg you not to betray our priests. You are called to live the messages. Go now and live the messages. (October 3, 2000)



▶ 애독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어머니 기사중에 하나님으로 표기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더욱 더 분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너희는 이 세상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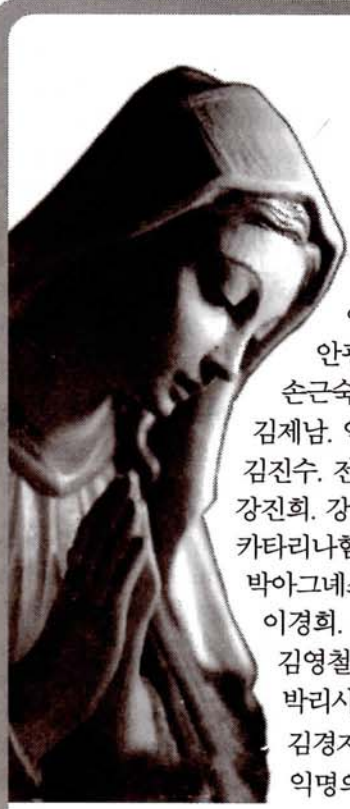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소식지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하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냉담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 연락주세요

"메주고리에"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어느곳이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매일 미사 책을 보시면...

미주가톨릭에서 발행하는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성모님께서 매달 25일에 주시는 메시지와 선교회의 순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테레사 M. 문데레사. 최헬레나. 이데레사. 임아네스. 김병순. 소안나. 홍젼마. 오수산나. 윤벨라멧다. 최인순. 김학실. 김정자. 최정봉. 오미경. 최루시아. 오지은. 이인석. 강대우. 최석례. 이동우. Wagner Sun. 문경희. 이혜분. 최수산나. 양테레사. 이은아. 최석례. 김정임. 최아그네스. 이성희. 장연자. 장마리아. 김정미. 안말희. 안광숙. 남마리아. 김경순. 홍석의. 박종원. 이사비나. 잔슨윤숙. 김미카엘라. 김효정. 손근숙. 권상환. 이경애. 손마리아. 배요한. 배골롬바. 이지은. 오베로니카. 임재형. 김진미. 김제남. 염정호. 정윤도. 신순원. 노마리아. 임은정. 주황룡. 김영실. 한린다. 이재선. 조동진. 김진수. 전수자. 김테레사. 류승부. 백안셀모. 이데레사. 이준모. 오지은. 박연희. 안정자. 강진희. 강천구. 이정옥. 김영숙. 송란규. 이지연. 김윤영. 홍사라. 이선녀. 전경애. 박정희. 카타리나함. 유성숙. 윤리. 김아그네스. 김호영. 박화영. 이로서. 이수동. 신동배. 박프란치스카. 박아그네스. 친모니카. 홍세실리아. 유글라라. 박세실리아. 부르클린 성당 바다의 별 Pr. 이경희. 홍병호. 최상환. 효안한의원. 이은경. 최경미. 이진민. 오서영. 홍현미. 박성순. 김영철. 김혜정. 원희. 윤호숙. 신순덕. 유화윤. 마나니타 기도회. Dana cate. 한린다. 마헬렌. 박리사. 정옥순. 최종금. 김성숙. 김경련. 이정연. 김미선. 전영란. 강영숙. 금라우라. 김경자. 박우선. 이미정. 노영란. 제2구역 반원일동. 익명 익명의 신부님 (미사헌금 전액을 소식지 보급에 쓰도록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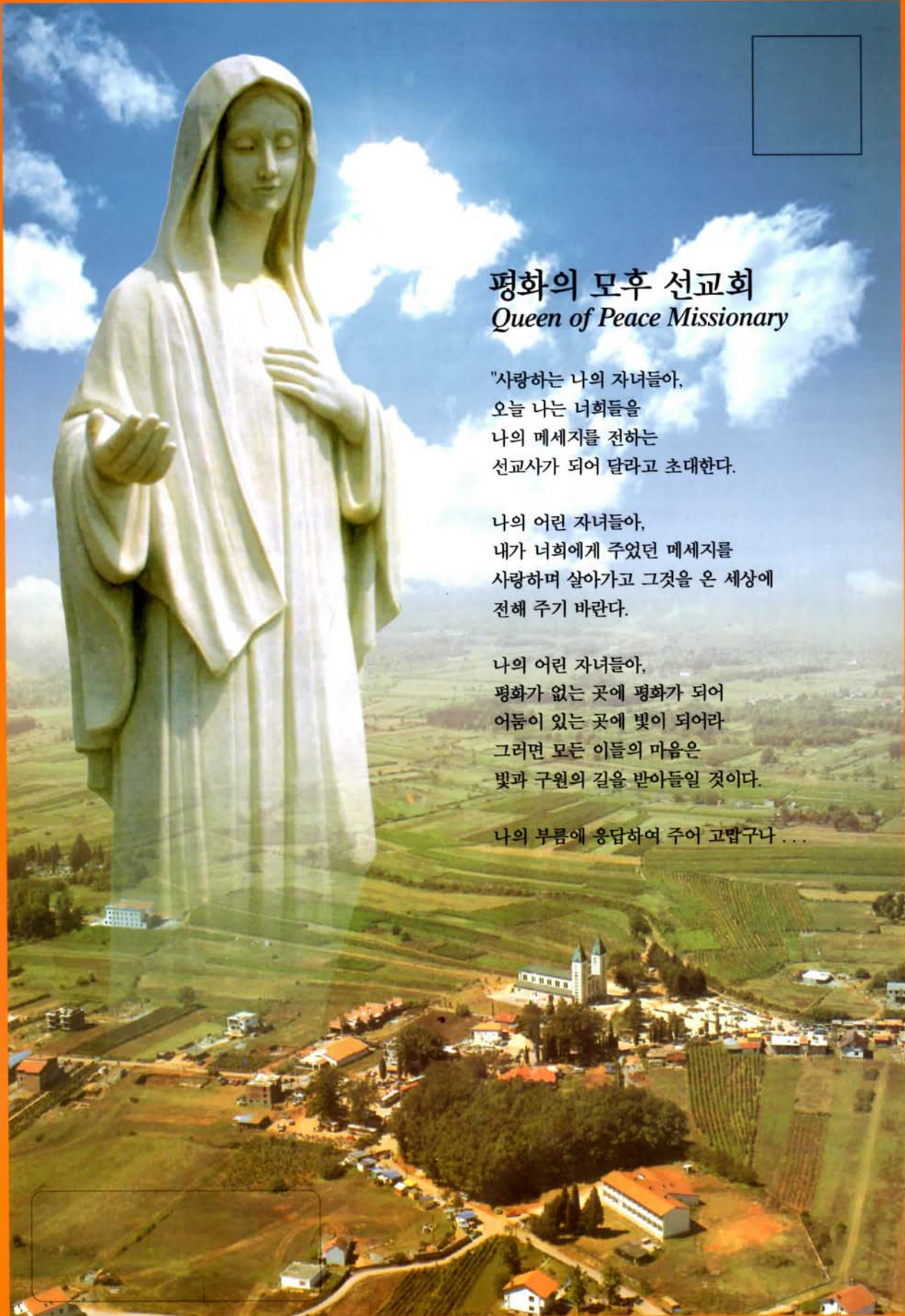
그 동안 한국에서 도움을 주신 후원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명단은 다음 호에 기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소식지 제25호는 미국에서 7,000부, 한국에서 4,000부를 발행하여 총 11,000부를 사이판과 괌을 포함한 미주 전지역과 캐나다, 메주고리에, 한국에서 무료 보급하였습니다.

• 후원금 합계	\$ 6,730.00
지출 (23호 및 24호 소식지)	
인쇄, 발송, 원고료	\$ 7,150.00
통신비	\$ 512.00
교통비	\$ 482.25
기타 비용	\$ 736.00
• 지출 합계	\$ 8,880.25
• 부족금	\$ 2,150.25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세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세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준용**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우수동 성당**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Tel. 02-2297-2038 / 허 안젤라 HP. 017-785-3535  
E-mail : hhk2123@hanmail.net